



대학 최고 명궁은 누구 12일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열린 '광주여대 총장기 제23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남자 대학부 경기에서 참가선수들이 시위를 당기고 있다. 국내 대학양궁 최강을 가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대학 22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컴파운드와 리커브 부문에서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여자 대학부 거리별 경기에서 김민서(광주여대)가 60m에서 은메달, 7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여대 제공>

서봉수 9단 통산 1700승 조훈현·이창호 이어 3번째



서봉수(67·사진) 9단이 개인 통산 1700승을 달성했다. 서봉수(KH에너지) 9단은 12일 서울 한국기원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바둑리그5라운드 3경기에서 차민수 9단(영암 월출산)에게 305수 만에 흑 5집 반 승을 거두며 1700번째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서봉수 9단은 통산 1700승 3무 1007패로 승률 62.80%를 기록하게 됐다. 개인 1700승은 조훈현·이창호 9단에 이어 국내 프로기사 3번째로 나온 대기록이다. 서봉수는 1970년 9월 14일 입단, 17일 만인 1970년 10월 1일 프로 데뷔전인 제32회 승단대회에서 고(故) 강문철 당시 초단을 상대로 첫 승을 거뒀다. 이후 1983년 11월 이동규 6단(은퇴)을 상대로 500승을 거뒀고, 1993년 10월 1000승(황원준 당시 7단), 2012년 3월 1500승(김수진 당시 3단) 고지에 올랐다. 서봉수는 1972년 제4기 명인전에서 첫 타이틀을 획득하며 최연소 명인에 오르는 등 명인전 7차례 우승을 포함해 프로 통산 30회 우승, 67회 준우승을 기록했다. 세계대회에서는 1993년 제2회 응씨배에서 첫 타이틀을 획득했고, 1996년에는 국가연승대회전인 제5회 진로배에서 9연승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이러한 활약으로 서봉수는 조훈현·유창혁·이창호 9단과 함께 1970~1990년대 한국 바둑을 이끈 4대 천왕으로 이름을 날렸다. /연합뉴스

보성군청 박행주 부상 딛고 '금 번쩍'



12일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81kg급 금메달을 딴 박행주. <보성군청 역도팀 제공>

부상에 체급 낮춰 81kg급 출전
전국실업역도선수권 용상 1위
같은 팀 김영준 은·서지원 동 3

보성군청 박행주(33)가 부상후원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박행주는 12일 강원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2020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전국춘계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81kg급에서 인상 140kg, 용상 188kg, 합계 328kg을 들어올렸다. 인상은 7위에 그쳤지만 용상에서는 1위였다. 합계는 4위. 박행주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 결국 몸무게를 감량, 원래 체급보다 더 낮은 체급에 출전했다. 이게 부상으로 힘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

다. 박행주의 원래 체급은 85kg급 터줏대감이다. 조 선대 졸업후 보성군청에 입단했던 2010년을 제외 하고 전남체고 시절부터 출몰 85kg급에서 뛰었다. 감량 출전은 고육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에는 대회가 없었고, 1년 중 가장 큰 대회인 전국체전이 취소된 데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여파를 가능할 수 없어 전국대회 참가는 필요한 상황이 었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30kg을 든 박행주는 2차에서 135kg, 3차에서 140kg을 들었다. 이어 자타가 공인하는 용상에서 금메달을 노렸다. 1차 시기에서 180kg을 기록했고 2차 시기에서 187kg에 실패했다. 이미 1위를 달리던 양지웅(아산시청)이 187kg을 든 상태였다. 박행주는 3차 시기에서 188kg에 도전해 기쁘하게 바벨을 드는데 성

공했다. 양지웅과 김성민(경남도청)이 190kg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1위는 박행주의 몫이 됐다. 합계에서 3위 김영섭(국군체육부대)에 1kg 뒤져 4위에 그쳤지만 박행주는 시즌 첫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전날 열린 일반부 남자 61kg급에서는 보성군청 김영준(29)이 용상에서 140kg을 들어올려 은메달을 획득했다. 일반부 여자 59kg급에 출전한 보성군청 서지원(19)은 인상 75kg, 용상 95kg, 합계 170kg으로 동메달 3개를 기록했다. 김용철 보성군청 감독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인상에 나섰고 용상에서 메달을 노렸는데 성공했다"며 "박행주가 부상으로 인상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었지만, 부상을 다스리고 컨디션을 조절하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윌리엄스 자매 16강 맞대결 여자프로테니스 톱시드 오픈

윌리엄스 자매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톱시드 오픈(총상금 22만5000달러) 단식 16강에서 맞대결한다. 동생인 세리나 윌리엄스(9위·미국)는 12일 미국 캔터키주 렉싱턴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베르나다 페라(60위·미국)에게 2-1(4-6 6-4 6-1) 역전승을 거뒀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67위·미국)가 빅토리아 아자리카(58위·벨라루스)를 2-0(6-3 6-2)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이로써 비너스와 세리나는 이번 대회 8강행 티켓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이게 됐다. 이 경기는 현지 날짜로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올해 40세인 비너스와 한 살 어린 세리나는 지금까지 30차례 맞대결을 벌여 동생인 세리나가 18승 12패로 더 많이 이겼다. 최근 맞대결은 2018년 US오픈으로 당시 3회전에서 세리나가 2-0(6-1 6-2)으로 승리했다. WTA 투어는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을 중단했다가 이달 초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열린 레이디스 팔레르모오픈으로 재개했다. 톱시드 오픈은 WTA 투어가 2020시즌 일정을 재개한 뒤 열리는 두 번째 대회다. /연합뉴스

영암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열려

현대N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코리아인터네셔널서킷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인 현대N페스티벌이 열렸다. 12일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에 따르면 현대N페스티벌이 지난 9일 국내유일의 1등급 서킷인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코리아인터네셔널서킷(Korea International Circuit)에서 무관중 경기로 열렸다. 이날 경기는 2-3라운드였다. 경기는 벨로스터 N컵(VELOSTER N Cup)과 아반떼 컵(AVANTE Cup) 두 가지 원메이크 레이스로 진행됐다. 원메이크 레이스는 동일 제조사에서 만든 차량이나, 한 가지 모델의 자동차만 참가하는 경기다. 대회는 예선과 결승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스피리트와 타임 트라이얼 두 가지 방식으로 열렸다. 스피리트 예선은 전체 참가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주행하여 한 바퀴 랩을 가장 빠른 기록으로 주행한 순으로, 결승은 전체 참가자가 동시에 출발해 정해진 바퀴수를 가장 빠르게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타임 트라이얼은 전체 참가자가 정해진 시간 동



최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코리아인터네셔널서킷(Korea International Circuit)에서 열린 현대N 페스티벌에서 레이싱이 진행되고 있다.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 제공>

안 주행해, 한 바퀴의 랩을 가장 빠른 기록으로 주행하는 순으로 포인트를 부여하며, 각 회차 별 포인트를 합산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경주다. 이날 벨로스터 N컵 2라운드는 팀 레퍼드 맥스 GT1의 권기원 선수가 26분8초866으로, 3라운드는

팀 MSS의 김효겸 선수가 22분6초201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현대N페스티벌은 자동차 휠 전문 제조 기업(ASA)가 힘을 후원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GA 상금 랭킹 1위 토머스

앞아서 보너스 200만달러 챙겨 페덱스컵 포인트 1~10위까지 지급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상금랭킹 1위를 달리는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보너스 200만 달러(약 23억7000만원)까지 챙겼다. 토머스는 12일 정규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1~10위에게 나눠주는 원뎀 리워드 보너스 1위를 공식 확정했다. 원뎀 리워드는 정규 시즌 최종전 원뎀 챔피언십 종료 시점 페덱스컵 랭킹 1~10위 선수에게 1000만 달러(약 119억원)의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토머스는 시즌 최종전 원뎀 챔피언십에는 출전하지 않지만, 2위 콜린 모리카와(미국) 역시 원뎀 챔피언십에 나서지 않는 데다 3위 웨브 심프슨(미국)은 원뎀 챔피언십에서 우승해도 토머스를 추월할 수 없어 1위를 굳혔다. 원뎀 리워드 1위 보너스는 200만 달러다. 미국 언론은 토머스가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37위에 그친 위안을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받은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10위까지 순위는 유동적이다. 특히 보너스 상금 150만 달러가 걸린 2위 지리가 주목된다. 현재 2위 모리카와가 출전하지 않기에 3위 심프슨, 4위 브라이슨 디섀보(미국)뿐 아니라 5위 임성재도 우승하면 2위에 오른다. 올해 2승을 따낸 심프슨은 이 대회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2011년 생애 첫 우승을 원뎀 챔피언십에서 따낸 그는 딸 이름을 원뎀으로 지었다. 원뎀 리워드 보너스는 3위 120만 달러, 4위 110만 달러, 5위 100만 달러, 10위는 50만 달러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2관	오케이 마담
3관	강철비2: 정상회담, 인셉션
4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5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6관	오케이 마담
9관	오케이 마담
7관 씨네커를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반교: 디텐션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 반도 열라 블라 빙고: 친구 찾기 대작전, 빅사크3: 젤리몬스터 대소동
8관 씨네커를	강철비2: 정상회담, 반도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